

광주 '청년 사장님' 비중 17개 시·도 중 두번째 높다

■ 부산상의 '장년층 경영자 현황' 조사

광주 39세 이하 경영자 16.7%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최저
전남 경영자 4명 중 1명 장년층

광주지역 39세 이하 청년층 기업인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전남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장년층 경영자 현황' 조사 결과에 담겼다.
광주 전체 사업체 12만3706개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경영자가 있는 비중은 16.7%(2만639개)로, 인천 16.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광주에 이어 서울(16.6%), 세종(16.5%), 대전(16.4%), 경기(16.0%), 대구(15.5%), 제주(15.4%) 순으로 청년층 경영자 비중이 높았다.
강원(12.3%)과 전남(12.4%), 경북(12.8%), 경남(13.7%), 전북(14.0%), 부산(14.1%), 충북(14.3%), 충남(14.4%), 울산(15.1%) 등은 전국 평균 청년층 경영자 비중(15.2%)을 밑돌았다.
광주는 '젊은 사장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비중은 최하위를 나타냈다.
광주 60세 이상 경영자는 2만4981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다.
이는 세종(16.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남은 사업체 경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장년층이었다.
전남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은 24.8%(16만 1883명 중 4만201명)으로, 부산(27.4%)과 강원(2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23.0%이었다.
광주에서는 정보통신업 청년층 경영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남은 제조업의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부산상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경영자 연령대를 분석했다.
광주 4개 산업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정보통신업이었다.
광주 정보통신업체 909개 가운데 18.9%에 달하는 171개 업체 경영자가 39세 이하 청년층이었다.

반면 60세 이상 경영자는 13.8%에 불과한 125명이었다.
청년층 경영자 비중은 정보통신업에 이어 지식 서비스산업(16.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2%), 제조업(9.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가장 작았고, 40-59세 중년층 69.6%, 장년층 20.9%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4개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제조업 장년층 경영자는 전체 1만4537명 중 28.1%인 4090명이었다. 청년층 경영자는 8.2%였고, 중년층은 63.7%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산업별 연령대별 경영자 비중은 ▲정보통신업 청년층 9.8%·장년층 14.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청년층 9.7%·장년층 25.5% ▲지식 서비스업 청년층 9.7%·장년층 22.7% 등으로 나타

났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418만여 개로, 광주와 전남은 각각 3.0%(12만개), 3.9%(16만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93만개)였고, 서울(82만개), 부산·경남(각 29만개), 경북(24만개), 대구(21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체는 전체의 47.0%(196만개)를 차지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60세 이상 장년층 기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업승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60세 이상 장년층 기업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위험 요소"라며 "기업승계 지원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청년 기업인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동물복지인증 닭고기'로 말복 더위 나세요



9일 광주지역 롯데마트 직원이 말복(10일)을 맞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를 선보이고 있다. '동물복지'란 가축이 최대한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 시스템이다. <롯데쇼핑 제공>

2분기 소매판매 광주 줄고 전남 제자리

광주 1년전보다 4.2% 감소 통계청 '서비스·소매판매' 동향

올해 2분기 광주·전남 소매판매가 다시 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제주·부산·전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을 기반으로 작성한 올 2분기(4-6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광주는 4.2% 감소했고, 전남은 동일했다.
광주는 지난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

들한 뒤 올 1분기 들어 5.1% 증가했지만 2분기 반락했다.
제주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15.7% 증가했으며, 서울(6.4%), 부산(4.8%), 전남(0.0%) 등 4개 시·도가 감소세를 면했다.
2분기 광주 백화점 판매는 전년보다 7.5% 증가했지만, 전년비 증가율(22.8%)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백화점을 제외한 대형마트(-0.7%)와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13.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8.1%), 전문소매점(-0.7%) 업체들은 전년보다 판매액이 줄었다.
전남 대형마트와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부문은 각각 0.2%, 13.9% 판매액이 증가했다.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9.2%), 전문소매점(-8.4%)

은 줄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액은 광주 4.0%·전남 3.5%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생산액이 25.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동산업(11.3%), 교육 서비스업(7.1%), 정보통신업(6.5%) 등이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1.8%), 숙박 및 음식점업(1.2%)은 소폭 늘었다.
전남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이 27.7%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5.3%), 금융 및 보험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재해보상업무 온라인 청구 확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재해보상업무 온라인 청구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재해보상제도 운영의 하나로, 사망조위금을 포함한 재해보상업무를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망조위금·직무상 재요양 승인·재활금

여의 청구는 고객이 직접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구비해 사학연금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재해보상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우편료 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사학연금 측은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부터 재해보상 업무 중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신청 업무(직무상 요양연장, 특수요양비)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과 부상 및 장애를 입은 교직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혁신과 서류작성의 간소화 등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풍 '루핏' 영향 열돔 완화 이번주 전력수급 안정적 전망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제9호 태풍 루핏의 발생 영향으로 한반도의 열돔 현상이 완화되면서 전력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주간 전력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8월 둘째 주는 여름철 휴가가 끝나고 산업체 조업을 복귀로 최대 전력수요는 87.4~88.5GW, 예비력은 11~12GW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확보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를 94.4GW로, 최대전력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전망했다. 예비율은 최저 5.1%로 예측한 바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60.42 (-9.94)
↑ 코스닥	1060.00 (+0.20)
↑ 금리 (국고채 3년)	1.436 (+0.003)
↑ 환율 (USD)	1144.30 (+2.20)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